

지역 소식통

정읍시, 대학 신입생  
취준생 각 100만원 지원

정읍시가 2023년도 대학교 신입생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장학금·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에게는 등록금과 초기 정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입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취업·구직 등에 필요한 구직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과 2022년 검정고시 최종합격자 중 학생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2023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다.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은 합격자에 한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연말까지다.

구직지원금은 정식 합격자 발표가 끝나는 2023년 2월 6일부터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농업·농촌 발전  
방안 논의 소통 시간 가져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순정축협 한우명품관에서 농업농촌 변화의 현실 진단과 발전방안을 공유하고, 직원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단절되어 있던 농업 분야 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정정기 소장을 비롯해 농업기술센터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 사회 만들기라는 주제로 외부 강사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이후 이학수 시장과 직원들은 대화의 시간을 통해 정읍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시장은 즉문즉답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의 소리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읍=김대환기자

#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정읍시, 22억1300만원 투입 식량·채소·과수 등 4개 분야... 내년 1월 17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지역 내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농업 신기술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 새로운 농사 기술 확산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나선다. 2023년도 신기술시범사업은 식량작물 분야 10개 사업, 채소 분야 12개 사업, 과수 분야 6개 사업, 배리산업 및 시험연구 분야 9개 사업 총 37개 사업이다.

사업비는 22억1,300만원(국비 4억 3,000만원, 도비 3억2,250만원, 시비 10억7,750만원, 자부담 3억8,300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색채선별기를 이용한 백립계 밀 원료곡의 품질향

상 기술시범사업 △수입 유박 대체 발효 기술 및 자가 퇴비 생산기술 시범사업 △관수시설 활용 과수 등 상해 방지 기술 보급 시범사업 △블루베리 노후화 용토 교체 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 기한은 2023년 1월 17일까지다.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 또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역 내 거주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고,

사업 예정부지와 건물이 담보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5년 이내에 지방보조금 부당수령 등으로 인해 보조금 결정이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추진계획서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분야별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을 발굴한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격의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대설경보에 전 직원 제설작업 '총력 대응'

지난 23일 정읍시에 최고 49.5cm의 폭설이 내리며 대설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정읍시가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날 이학수 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은 전날부터 내린 폭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출근길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제설작업에 나섰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행복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이 시장과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골목길, 보도 등 취약구간을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에 매진했다.

또 주민들의 능동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지역 내 설치된 제설함 곳곳마다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비치하는 작업도 펼쳤다.

시는 도로 제설작업에도 만전을 기했다. 도로 제설반은 22일 새벽 4시부터 제설 차량 14대를 동원해 취약지역



을 중심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도로면 결빙 예방에 힘을 쏟았다.

또한 굴삭기와 덤프 등 민간장비 32대를 활용해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했으며 이는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기상예보를 주시하며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제설작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겨울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최대 규모 특별교부세 확보... 4개사업 28억원 추가 교부

고창군,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 등 총 18개 사업 70억원 확보

전북 고창군이 하반기 중앙부처 특별교부세(국비) 28억원을 추가 교부받아 올해 총 18개 사업 7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최종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도 49억원 대비 21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 10월 광승환 선착장 조성사업 등 5개사업 26억원을 확보한 지 두달여 만에 일궈낸 값진 성과이며, 시급한 현안·재난업무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반기(2차)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은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10억원) △홍덕농공단지 석교소하천 정비사업(7억원) △고창군 노인요양원 차매전담실 신축(4억원) △상건소하천 제방 정비사업(7억원)이다.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심원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장기미사용에 따라 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이 없었다. 고창군은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10억원 규모의 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홍덕농공단지 석교소하천 정비사업'은 농공단지 내 범람이 붕괴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유수단면적이 부족해 호우시 토사 슬라이딩이 계속 일어나는 위험구간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직원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쾌적한 기업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고창군 노인요양원 차매전담실 신축사업'은 율계리 노인요양원 앞에

차매전담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늘어가는 노인돌봄 수요에 맞춰 2009년부터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용인원 대비 시설이 부족했다. 이번 사업추진으로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의 공간구분으로 차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케어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건소하천 제방정비사업에 7억원을 확보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는 고창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사업위로 확보했다"며 "특히 윤준병 국회의원과 협력해 최대확보라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채민,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현안사업 확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하반기 특별교부세 22억원 추가 확보

부안군은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2차로 하반기 특별교부세 2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소포천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10억원 △동전지구 논밭작물 재배기반 구축사업 4억원 △홀포 체육시설 조성사업 4억원 △행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억원이다.

소포천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공사는 통수단면 및 홍수위 부족에 따른 홍

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해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동전지구 논밭작물 재배기반 구축사업은 용배수 정비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홀포 체육시설 조성사업 및 행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군민들의 보편적 생활체육 복지서비스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부안군은 1차 11억, 2차 22억에 이어, 이번 3차 22억원 등 총 55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와 불안정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군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도도 중앙 부처를 지속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공무원 총동원 제설작업... 주민불편 최소화

고창군이 대설경보에 대응해 전 공무원이 총동원된 제설작업에 나섰다.

지난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를 기해 대설경보가 발령되고 성내면에 22.2cm등의 누적 적설량(21일부터 23일 오전 10시까지 기준)을 보이고 있다.

군은 오전 9시 노형수 부군수 주재로 긴급 제설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전 공무원이 총출동해 보도길과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주변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창전통시장 장날을 맞아 상인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 제설작업도 신속히 진행했다. 상인과 지역 주민들도 제설도구를 들고 상점 앞, 집 앞은 물론 주변길 제설 작업에



동참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눈길 교통 상황관련, 덤프·모래살포기·그레이더 등 장비 9대를 동원해 교량, 결빙지역 등 22개노선 282km 구간의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는 제설장비 작동상황 등을 점검하고,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고창군, 연말연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총력

고창군이 폭설과 한파 속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은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및 읍·면 취약계층 집중 위문 △독거가구 및 폭설시 고립위험가구, 주택붕괴 위험가구 등 안전확인 대상자 집중관리 △위기 상황별 맞춤형 민생연전 지원 △따뜻한 동행 문화 조성 등이다.

군은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취약계층 지원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위기가구 집중 발굴과 맞춤형 지원, 나눔문화 확산, 민관협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 28일부터 2주간을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집중 위문기간으로 정하고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찾아 안부를 묻는다.

/고창=김영식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